

# ‘녹색한우 유통센터’ 나주에 문 연다

### 16억6000만원 투입 육가공장 등 갖춰 오늘 준공식

### 미국 등 대형매장 운영 H-MART 입점 협약식도

도내 광역 한우브랜드인 친환경 인증 ‘녹색한우’를 구입할 수 있는 유통센터가 나주에 문을 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4일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에서 국회농수위 최인기 위원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이사를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장과 녹색한우 회원 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한우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통센터는 부지 3443㎡(1041평)에 건평 1436.9㎡(436평) 규모로 총 16억6000만원을 투입해 육가공장, 냉동창고, 자재창고, 사무실 등을 갖췄다.

유통센터는 친환경인증 한우를 나주 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해 1차 지

육가공, 2차 포장육 가공을 통해 단체급식과 온·오프라인 선물세트 판매를 기본 사업으로 녹색한우 참여 축협 판매장과 가맹점 공급 등 전국 도·소매 판매 물류 중점기지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녹색한우’는 미국·캐나다에 46개의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H-MART와 입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녹색한우 정찬주 대표이사는 “이번 유통센터 준공으로 이전에 생우 위주 판매사업에서 부분육 및 소모장

가공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직접 가공 및 판매의 시스템 구축으로 ‘녹색한우’ 브랜드 사업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한우는 전남의 서·남부 지역 8개축협(강진완도, 광주, 나주, 목포무안신안, 장성, 영암, 해남진도, 화순)이 참여하는 한우 광역브랜드이다. 지난 2008년도에 출범했으며, 현재 1200여 한우농가가 7만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협의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다.

가공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직접 가공 및 판매의 시스템 구축으로 ‘녹색한우’ 브랜드 사업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한우는 전남의 서·남부 지역 8개축협(강진완도, 광주, 나주, 목포무안신안, 장성, 영암, 해남진도, 화순)이 참여하는 한우 광역브랜드이다. 지난 2008년도에 출범했으며, 현재 1200여 한우농가가 7만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협의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다.



**봄기운 솔솔 ~ 상큼한 봄나물 캐기**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 들녘에서 주민들이 봄 향기 가득한 봄나물을 캐고 있다. 보리이삭을 비롯해 달래, 냉이, 취나물 등 봄나물은 봄철 입맛을 돋운다. <영암군 제공>

###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들 나섰다

#### 나주경찰 세지파출소 어머니 자율방범대 발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나주지역 학부모들이 발벗고 나섰다.

나주경찰서 세지파출소(소장 나환주)는 지난 22일 세지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지역 감성치안을 위한 ‘세지면 어머니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가졌다. 지역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근절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치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병윤 방범대장은 취임사에서 “어머니들의 감성을 발휘해 경찰과 공조하면서 다채로운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 장성군-상무대 체육시설 공동이용 예산 절감

#### 상생모델로 감사원장 표창

지역사회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한 장성군 행정혁신 사례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3월 장성군과 상무대가 맺은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협약’이 예산절감과 민·관 상생모델로 올해 감사원 모범사례에 선정, 감사원장 표창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장 표창은 오는 8월 감사원 개원 기념식에 맞춰 수여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군과 상무대가 체결한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협약’이 상호보유하고 있는 문화회관, 연병장, 체육관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공동이용함에 따라 획기적 예산절감과 지자체 상생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담양농기센터 양봉분야 품질·환경 경영 인증 추진

담양군이 딸기와 메론, 방울토마토에 이어 전국 최초로 양봉 분야의 국제 품질경영(ISO9001)과 환경경영(ISO14001) 인증 획득에 나선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23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양봉연구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생산 국제규격 인증획득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다음달부터 ISO9001, ISO14001 인증획득을 위한 양봉농가 교육과 함께 품질과 환경관리 분야 컨설팅,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지침에 따른 시스템화 등을 거쳐 6월에 최종 인증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 농어촌 공사 1사1촌 맺어 지역민 곁으로

#### 혁신도시 신사옥 착공 앞서 나주 흥고추마을과 결연

관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다음달 8일 신사옥 착공에 앞서 지역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하는 등 현지 지역민들과의 교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나주시 송촌동에 위치한 흥고추정보화마을과 24일 임직원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갖는다.

이번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공사는 농민기질 일손 돕기와 특산물 구매 및 홍보활동에 협력하며, 흥고추 마을은 각종 행사 지원과 마을공동시설 이용 등 공사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재순 사장은 “기관과 지역민들이 1사1촌을 넘어 하나의 이웃사촌으로서 융화돼 성공적인 이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1월에도 나주시 사회복지시설인 계산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남 싸이러엔딩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본부(본부장 김영운)는 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내고향 지킴이’ 전남지역본부 총회를 개최했다.

‘내고향 지킴이’는 지난해 10월 발대식에 이어 이날 지역총회를 통해 신입대표와 임원을 선출하고 활동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민 360여명으로 구성된 ‘내고향 지킴이’는 자율적인 농정 모니터링과 환경 정화활동에 직접 참여해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영운 전남지역본부장은 “지킴이 운영조직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전 북

### 순창 섬진강 오토캠핑장 인기

#### 겨울 캠핑족 꾸준히 늘어 개장 이후 3000여명 방문

지난해 8월 개장한 섬진강 마실 휴양숙박단지 오토캠핑장에 캠핑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100여명이 숙박단지를 다녀갔고, 군 세입도 16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겨울 방문객도 700명에 달해 33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처럼 섬진강 숙박단지는 여름, 가을을 넘어, 올 겨울에도 오토 캠핑장을 찾는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섬진강 숙박단지는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에 3동의 펜션과 18개의 야영장,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지난해 6월 완공, 같은 해 8월 개장했다.

이곳은 관리실과 휴게실, 다목적실이 있는 관리동 1동과 펜션 49㎡(14



**남원 광한루 합동 소방훈련** 남원시설사업소는 지난 22일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광한루(보물 제281호)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훈련에는 광한루원 자위소방대, 남원소방서, 남원시청 문화재 담당부서가 참가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군산 근대 건축물 연결 테마거리로

#### 문광부 관광 활성화 사업 '1930년 군산시간여행' 선정

#### 32억6000만원 투자 원도심 재생... 관광객 불거리 제공

군산시가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근대 건축물을 하나로 연결한 근대 역사테마거리 조성에 나선다.

군산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12년도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군산시가 신청한 ‘1930년 근대군산, 시간여행’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은 전국 5개 도시에 관광진흥 개발기금 5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광역 시·도에서 각각 예비평가를 거친 결과 전국 33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1930년 근대군산, 시간여행’은 원도심지역 재생을 위해 총 32억6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그동안 구축된 하드웨어적 근대역사문화 관광 인프라를 동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군은 ▲1930년 근대군산 스토리텔링(원도심 지역) ▲탐방로 정비(근대역사 박물관~근대역사 체험공간) ▲맛의 거리 조성(이성당~구 월명동사무소) 등을 상반기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930년 근대군산 스토리텔링’은 원도심 지역에 있는 근대역사와 관련한 이야기와 일본식 지명인 ‘가도’와 ‘가리’를 발굴, 구술화해 시민과 관광객이 지루하지 않게 원도심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맛의 거리’는 이성당에서 옛 월명동사무소 구간의 먹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식이 있는 풍경’을 컨셉으로 간판정비, 건축물 입면 개선, 도로정비, 편의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극단 등)은 원도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공연관람을 통해 지역의 근대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근대산업 유산 예술창작벨트’,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을 연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에게 불거리 제공과 함께 원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

### 뉴스 브리핑

#### 전주 한옥마을내 경기전 6월부터 유료화

전주시는 한옥마을내 경기전(慶基殿·사적 제339호)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유료화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유료화를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여론수렴작업을 해왔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 시민 60%가량이 유료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와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관람료는 성인 1000원·청소년 700원·어린이 500원이며, 전주시민은 이 요금의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정읍시보건소 심혈관질환예방 최우수 표창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21일 전북도 주관의 ‘2011년도 심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 보건소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선별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병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건강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시,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

남원시가 야간 밤샘주차로 겪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지도·단속반을 편성해 2~4월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 까지 수시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장소는 주택이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또 상습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김제소방서 유흥주점·노래방 등 소방안전교육

김제소방서(서장 유영철)는 23일 3층 대회의실에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찜질방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한 화재안전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따라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수 대응구조과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 새 얼굴

#### “고품질 전력서비스로 고객 감동 경영”

#### 조죽현 한전 정읍지사장

“지역에 고품질의 전력공급과 최고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취임한 조죽현(53)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장은 “고객감동 경영을 펼쳐 정읍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각자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 출신인 조지사장은 배운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6년 한전에 첫발을 내디딘 후 경남지사 자재부장, 북경지사 부장, 중국지사장, 해외사업운영처 사업운영팀 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